주체사상원리해설 3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기본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기본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 103(2014)년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입니다.》

김 정 일

머 리 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의 부모가 있듯이 나라와 민족이 있으며 자기 부모를 사랑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긴다.

아마도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기때문이리라.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 또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력사를 가지고있다. 그 력사속에 매 민족성원들이 걸어온 운명의 력사도 있다. 바로 발전과 번영, 망국의 비운이 엇갈려 흘러온 나라와 민족들의 력사속에 당대 민족성원들의 창조와 투쟁의 력사가 있는가 하면 피눈물을 흘린 비극의 력사도 있는것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민족으로, 자기 나라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대한 나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지금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 도전을 물리치고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나가고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자기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옳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속에 헤매이는 나라와 민족들

도 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과연 어디에 달려있는가?

나라와 민족의 강성부흥과 번영을 위한 참다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민족이든지 운명개척의 가장 곧바른 길을 걷자면 라침판과 같이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옳바른 사상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라침판이 없으면 동서남북의 방향성을 잡을수 없는것처럼 옳바른 사상을 가지지 못한 민족은 항로를 잃고 바람따라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되고만다.

우리 함께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지도적원칙을 라침판삼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론하고 민족번영의 참다운 길을 찾아보자.

차　　례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김 정 일

1.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인류의 지향이고 념원이다.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진보적인류를 매혹시키고 그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는 자주!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바로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자주적립장이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이 립장은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기로 하자.

1) 주체와 사대

주체 44(1955)년 12월 28일.

이날은 조선의 현대력사에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날로 기록되여있다.

바로 이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로작을 발표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러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왜 조선인민의 새 사회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는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제 정신을 가진다는것이다.

《범에게 물려가도 제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산다.》는 옛 격언도 있지만 아무리 위험한 적수와 맞다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닥친다고 해도 제정신을 차리고 완강히 투쟁하면 승리할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의 식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남의 힘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면 자연히 사대주의에 물젖게 된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적굴종사상으로서 사대주의에 빠지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의 것, 큰 나라만 쳐다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것이다.

사대주의는 조선인민이 망국의 비운을 겪게 한 뿌리깊은 사상독소였다.

조선의 력사에서 나라의 위력이 강대하여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불리우던 고구려시기에는 사대주의가 없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망한 다음부터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반동적인 유교교리를 신봉하면서 사대주의에 물젖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대주의는 조선봉건왕조의 말기에 이르러 나라의 자주적발전에 더욱더 엄중한 해독을 끼쳤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다른 나라들이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걷고있을 때 밖으로는 큰 나라에 대한 숭배와 아부굴종, 안으로는 당파싸움으로 세월을 보냈으며 일본군국주의와 유미자본주의렬강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쳤을 때에는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

가끔 외세를 끌어들여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다나니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친로파가 득세하면 로씨야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이였다. 왕궁을 지키는것조차 남의 군대에 맡겼으니 나라는 누가 지켜주고 더우기 민족의 운명은 어찌 될것인가.

사대에 물젖은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5 천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던 조선민족이 하루아침에 일제에게 모든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해방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사대주의의 후과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그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오시였다.

그러나 사대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는 결코 선진적인 사상에 쉽게 자리를 내여주지 않는다.

오랜 기간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사대주의는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시기나 새 민주조선건설시기, 전후 사회주의혁명시기에도 자주와 창조의 항로를 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조선에서 사대주의의 해독성은 미제와의 가렬처절하였던 3 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가장 뚜렷이 드러났으며 특히 전후에 와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데 따라 더욱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이 시기에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조선의 구체적현실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기의것은 다 나쁘고 남의것은 다 좋다고 하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져 모든것을 남의 식대로 남에게 의존하여 하려고 하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사상사업분야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났다.

사대와 교조에 물젖은 이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연구하고 해설선전하는 사업에 힘을 넣는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소리를 맹목적으로 따라외웠으며 당의 혁명전통과 조선인민의 투쟁력사는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내리먹이고있었다.

어느 한 군대휴양소에 다른 나라의 풍경을 그린 그림은 있으나 조선의 금강산이나 묘향산과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그림은 없었고 어느 한 민주선전실에는 다른 나라의 5 개년계획에 대한 도표는 있었으나 조선의 3 개년계획에 대한 도표는 한장도 없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 시기에 당내에 기여든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당건설과 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하여나섰던것이다. 그들은 당안에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식시키는가 하면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지어 큰 나라의 수정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였다.

사대주의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

회주의건설을 단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조건과 환경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로작이 발표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쏘련공산당의 력사를 연구하는것이나, 중국혁명의 력사를 연구하는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연구하는것이나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더욱더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구체적현상들과 그 해독적후과, 그것을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사상분야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로작이 발표된것을 계기로 조선에서는 사상사업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당건설과 정권건설, 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대외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일대 진공

전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시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현대수정주의와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였다.

조선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한짝이 되여 당사업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여나선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쳐물리친것도 이 시기였고 조선로동당이 반제반미투쟁을 포기하고 미제와 타협할것을 강요하여나선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오만무례한 책동을 결연히 배격한것도 이때였으며 《통합경제》로선을 들고 조선을 저들이 만들어놓은 쎄브(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망라되였던 경제협조기구)에 들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으로 대답한것도 바로 이무렵이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이렇듯 심각한 정치사상투쟁속에서 조선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가장 위험한 사상독소인 사대주의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극복되고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사상분야에서 주체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하여 조선인민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기가 선택한 주체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아마도 그때 조선에서 사대를 배격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선풍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정치사상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오늘의 조선,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조선을 상상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다름아닌 사상이기때문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직접적담당자는 그 나라 인민들이며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하는것은 다름아닌 사상이다.

따라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사회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즉 정치나 경제, 국방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옳바른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들자신이며 운명개척을 추동하는 힘도 그 나라 인민들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겨

주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현시기 주체사상은 그 과학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수억만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사상으로 되고있다.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밝히고 세계를 비치는 옳바른 사상이 다름아닌 주체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다음으로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의것에 정통하여야 한다.

자기의것에 정통한다는것은 곧 자기 나라의것을 잘 안다는것이다.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매개 나라는 력사도 언어도 풍습도 자연지리적조건도 같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자기의것을 모른다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참답게 투쟁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기 나라의 력사와 자기 인민의 풍습, 생활감정을 모르고서는 자기 인민의 리익과 구미에 맞는 일을 할수 없다. 또 자기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모르고서는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업을 건설할수 없고 자기 나라 풍토에 맞게 농사도 할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것을 모른다는것은 곧 자기의 힘을 모른다는것이다. 자기 인민을 모르고 자기 나라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하

는것을 모르고서야 어데서 힘이 나오겠는가. 자기의것을 모르면 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나라와 민족을 건설하겠다는 생각도 나올수 없다.

주체 46(1957)년 6월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에 다니실 때의 일이다.

식물시험을 앞두고 몇몇 학생들이 어느 한 나라의 식물학자가 얻어낸 과일품종에 대하여 복습하고있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는 우리 조선사과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야기해보라고 하시였다. 학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뿐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조선의 사과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는 교과서에도 없고 누가 배워준적도 없으니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표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배워주지 않았기때문에 모른다, 게다가 복습문제에까지 없으니 알 필요도 없단 말이지 라고 혼자말처럼 하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신듯 창밖에 눈길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낮으나 심각하신 어조로 동무들,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남의 나라 땅에서 자라는 과일에 대해서는 그 생물학적특성이요 뭐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아는데 우리가 늘 먹는 우리 나라 사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학생들에게 조

선사과의 우월성과 특성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과를 배우는 목적도 바로 우리 나라의 사과를 더 잘 알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들자는데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것은 모르고 남의것만 알게 되면 남의 나라에 대한 환상만 생기고 자기의것은 다 보잘것 없는것처럼 여기에 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 제 정신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를 배워도 조선혁명을 위하여, 우리의것을 더 좋게, 더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는것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학생들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자세를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며 그들이 남의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것에 정통한 조선의 인재로, 나라와 민족을 꿋꿋이 떠받드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뒤떨어지면 눌리운다》는 말이 있지만 자체의 문화, 자체의 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민족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남에 대한 의존심을 없애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수 있다.

민족적자존심은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정신적원동력이다. 그것이 없으면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없으며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없다. 높은 민족적자존

심을 지닌 인민만이 그 어떤 멸시와 수모도 용납하지 않고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고 싸움으로써 운명개척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는것이 중요하다. 남보다 령토도 인구도 작지만 결코 자기 민족이 남만못지 않으며 자기 민족의것이 제일이라는 사상감정을 가질 때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지 못하면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에 빠져 자기의것을 통채로 버리고 남의것을 받아들이게 되며 자기 민족의 힘이 아니라 남의 힘, 남의 《원조》에 기대를 걸게 된다. 자기의것이 아니라 남의 《원조》로 민족의 《부흥》을 이룩해보려는 나라와 민족이 가는 길은 진보와 번영이 아니라 망국과 죽음의 길이다.

작은 나라일수록 큰 나라에 대한 사대와 굴종을 허용하지 않고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닐 때 그 인민은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살수 있다.

주체와 사대!

사대는 망국의 길이며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바로 이 길에 참다운 민족번영의 길이 있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부강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체의 이 진리를 심장에 새기자.

2) 현대정치의 생명선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해당 나라가 어떤 정치를 실시하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 매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 진보적이며 선진적인 정치가 실시되면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사회가 발전하지만 반동적이며 보수적인 정치가 실시되면 나라와 민족이 도탄에 빠지고 온갖 사회악이 빚어지게 된다.

인류력사는 그릇된 정치로 하여 나라와 민족을 멸망케하고 사람들을 빈궁에 빠뜨린 수많은실례를 기록하고있다.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 말은 고대중국의 이름난 철학가이며 정치가였던 공자의 말이다.

B.C. 516 년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태산기슭을 지나가고있을 때 한 부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고있었다. 사연인즉 호랑이가 그의 시아버지를 잡아먹고 다음에는 남편을 잡아먹더니 이번에는 자식을 잡아먹어버렸던 것이다.

공자가 그 녀인에게 그토록 무서운 이 땅을 왜 떠나지 않는가고 묻자 그는 여기에서 살면 가혹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니 호랑이만 아니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였다. 공자는 그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

섭다는걸 잠시도 잊지 말아라!》라고 신신당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에도 잘못된 정치로 하여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이 너무나 많다.

현시기 세계정치무대에서는 저들의 패권주의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정치가 판을 치고있다. 이러한 강권과 지배정치에 억눌려 일부 나라들에서는 예속정치, 추종정치를 하고있으며 결과 이 나라들에서는 자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지 못하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게 롱락당하고 있다.

인류는 이러한 정치를 배격하며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지향한다.

하다면 어떤 정치가 진정한 정치인가.

현대정치의 생명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주정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정치는 현대정치의 생명선입니다.》

자주정치는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는 정치이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인민의 요구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며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이다.

자주정치는 밖으로는 외세에 의존하거나 추종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고수하고 안으로는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인민이 주인이 된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이다.

현대정치에서 자주를 확고히 견지하면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지만 사대와 교조로 나가면 그 나라와 민족은 망하게 된다.

자주정치로 세계정치무대에서 빛을 뿌리고있는 조선을 보자.

조선의 정치는 철저한 자주정치이다.

현대의 명망높은 정치원로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정치를 확고한 정치신조로 간주하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투철한 자주정치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은 그 첫걸음부터 자주이냐 예속이냐를 판가리하는 첨예한 대립과 투쟁속에서 벌어졌지만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주적대를 한번도 굽히거나 양보한적이 없으시였다.

전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테제를 준비하시던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인민의 지향과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대한 과학적통찰로부터 사회주의혁명구호를 내들수 있는 주객관적조건이 성숙되였음을 확증하시고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테제를 준비하고계시였다.

그런데 주체 44(1955)년초 어느 한 나라의 고위인물은 테제를 보면 조선당이 도시수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리용하겠다는것인데 이것은 자본주의를 부식시키겠다는것이 아닌가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였다 .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테제를 내놓는것이 무엇이 나쁜가, 다른 나라에서 내놓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식대로 해나가겠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반격을 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강령을 놓고 수정주의자들과 일대 론쟁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로부터 1 주일만인 주체 44(1955)년 4 월에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력사적인 로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세상에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남들이 10 여년이 걸려서도 실현하지 못한 사회주의혁명을 단 4~5 년동안에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정치를 철저히 실시하시였기에 조선에서는 남의 간섭을 허용하거나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것과 같은 일이 한번도 없었으며 큰 나라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굽어든적이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철저한 자주정치로 이 땅우에 펼쳐지는 경이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하시며 자주정치는 현대정치의 생명선으로 된다는 철리를 굳게 확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치분야에서 일관하게 자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견지해오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자주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개혁》, 《개편》의 어지러운 바람이 세계를 휩쓸던 1980 년대말～1990 년대초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킬것이라는 자신의 정치신념을 명백히 표명하시여 세상사람들앞에 자신의 자주적신념과 배짱은 조금도 흔들림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시였다.

투철한 자주의 정치신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에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대국들과의 관계도 철저히 자주적립장에서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시였으며 국제정치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서도 자주적대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였다.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할 때의 일이다.

국제조약에도 규제되여 있는바와 같이 우주의 개발 및

리용은 모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떠들어대고 그 무슨 《요격》과 《제재》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갔다. 이렇게 되자 주변나라들까지도 《자제》를 건의하면서 조선의 위성발사에 제동을 걸었다.

자주냐 예속이냐, 대결이냐 굴종이냐.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에 집중되였다.

이 준엄한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길이 나라의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국력을 백배로 다지는 길이였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단행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의 자주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다.

력사는 한때 제국주의와 강경하게 맞선 나라가 세상이 달라지고 대세가 변했다고 하여 반제자주적립장을 저버린 례를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속에 잠겨있을 때 적들은 조선에서도 그 어떤 《체제변화》가 일어날것을 고대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망상하였다.

조선혁명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의 담력과 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모든 사업을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첫 공개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나아가려는 자신의 굳은 결심과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오늘의 시대에는 웬만큼 담이 크지 않고서는 자주의 기치를 들수도 없고 견지할수도 없다.

참대는 불에 타도 곧음을 버리지 않고 백옥은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다. 조선의 자주정치에는 죽으면 죽었지 민족의 최고리익은 털끝만큼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비상한 각오가 맥박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그처럼 기승을 부리는속에서도 조선이 자기의 결심대로 실용위성도 쏴올리고 적들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주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세계는 2012 년과 2013 년의 격동적인 사변들을 통하여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주정치의 진수와 그 위력을 똑똑히 보았다. 하기에 공정한 세계여론은 조선의 자위적조치를 억제할만한 처방이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없다는것, 다른 나라에서 은을 낸 가혹한 제재가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는것,

종당에는 제국주의세력이 조선과의 타협의 길을 선택할수밖에 없다고 격조높이 말하고있다.

조선이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 제국주의초대국과 맞서도 물러서지 않고 한다하는 대국들이 압력을 가해도 끄떡없이 나아가는 정치대국으로 될수 있은것은 바로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전진해온데 있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조선은 사대와 교조에 물젖어있었으며 비참한 식민지약소국의 처지에 놓여있었다.

프랑스의 한 만화가는 지난 한세기전 다리밑에 있는 《조선》이라는 물고기에 주변국들이 저마다 낚시줄을 드리우고있는 한장의 그림으로 당시 렬강들의 각축전의 마당으로 되였던 조선을 상징화하였다.

민족도 그 민족이고 지정학적위치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만 조선이 오늘과 같이 세계가 공인하는 자주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된것은 력사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 극적인 전환은 자주정치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 강한 인민을 키우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면 인민이 위대하고 나라가 강대해진다는 심오한 진리를 확증해주고 있다.

오늘의 세계무대에서 자주정치로 승승장구해나가고있는 것은 조선뿐이 아니다.

반제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꾸바와 베네수엘

라, 이란을 비롯한 많은 진보적인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위협, 끈질긴 방해책동이 더욱더 강화되는속에서도 자기의 민족적리익을 고수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고있는것은 이 나라들에서 자주정치를 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자주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이러한 나라들의 경험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정치를 지향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동하고있다.

자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정치에서 기본은 정책을 규정하고 집행하는것이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여야만 자주적인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로선과 정책작성에서 자기 인민의 요구와 자기 나라의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쳐먹게 된다.

자주정치를 실시하는데서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된다.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은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자주권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는 있으나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다당제》를 받아들인 아프리카나라들의 실태를 보자.

미제는 《다당제》는 《민주주의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떠들면서 아프리카나라들에 《다당제》를 강요하였다.

《다당제》는 제국주의자들이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질시와 반목을 조장시켜 대립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교활한 《촉발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망쳐놓는 무서운 《함정》이다.

그러나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은 《다당제》의 반동적본질을 가려보지 못하고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한데로부터 《경제원조》를 부대조건으로 걸고 《다당제》를 강요하는 일부 서방나라들의 책동에 굴복하고 말았다.

《다당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실태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이 나라들에서는 집권당들이 하루아침에 야당으로 굴러떨어지고 새 사회건설을 주장하던 대통령들이 정권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산생되였으며 사회적무질서와 혼

란, 경제의 황페화와 종족간대립과 충돌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게 되였다.

하기에 지금 《다당제》의 쓴맛을 본 적지 않은 나라들이 다시금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다당제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은 《다당제》를 집요하게 강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두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무엇때문에 억지로 입어야 하는가.》고 반문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이 어떤 정치체제를 실시하든 서방나라들은 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옳은 말이다.

남이 강요한다고 하여 사람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일개인이 허재비로 되지만 국가가 남의 나라옷을 입으면 나라와 민족이 통채로 허재비가 되고만다.

자주정치!

자주적대는 진리이고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이다.

복잡다단한 세계정치흐름속에서도 자주정치를 변함없이 고수해나갈 때 승리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의것으로 될것이다.

3) 경제위기와 그 해결방도

최근년간 자본주의세계경제를 보면 매우 불안정하다. 몇해전 미국소비시장의 기둥을 이루고 투기 및 도박의 주요대상으로 되고있던 주택시장에서 터진 경제위기가 원유가격의 폭등과 대독점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경제의 구성고리들을 여지없이 파괴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전반적자본주의나라들이 심각한 경제금융위기를 겪고있다.

엄혹한 경제형세와 식량위기의 후과로 2009 년에 세계적으로 기아의 위협에 직면한 인구수는 총 10 억 2 000 만명이라고 한다. 과학기술과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시대에 세계적으로 6 명당 1 명이 굶주리고있다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기 어렵게 하고있다.

물론 경제공황과 경제위기는 자본주의경제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시기 자본주의경제를 휩쓴 경제위기는 그 이전의 경제공황과 경제위기와 대비해볼 때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다.

미국잡지 《타임》은《자본주의를 어떻게 구원할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대 최대의 문제는 《자본가들이 자기자신의 가장 두려운 적으로 된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프랑스의 한 증권회사 분석가는 《문제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데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것을 인정한것이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쓰는 위기, 경제《해일》의 근원은 한마디로 말하여 불공정한 자본주의경제 그 자체에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리윤경제, 자유화경제이다. 경제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경제는 필연적으로 경제생활에서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을 낳는다. 이것으로 하여 기업가들의 사기와 협잡,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이 과정에 자본가들속에서 흥하고 망하는 현상이 격화되며 경제생활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게 된다.

《딸라기축체계》인 현 국제통화금융체계만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미국은 딸라를 세계화폐의 지위에 올려놓고 세계시장을 하나의 국가시장처럼 리용하면서 전세계적범위에서 착취와 략탈을 진행하기 위하여 1944년 7월에 자기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브레톤우즈협정》에 기초한 《딸라기축체계》를 세워놓았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딸라라는 일개 민족화페의 가치변동, 딸라에 대한 신용불안에 의해서도 전세계적인 화페위기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현실적으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의 후과는 유럽에로 미치고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뽀르뚜갈, 에스빠냐, 끼쁘로스를 비롯한 나라들이 채무위기에 빠져 헐떡거리고있다.

결국 미국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세계경제가 감기를 앓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미국에 의존한 자본주의경제체계

의 취약성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딸라중심의 현 자본주의경제체계를 들어내지 않는 한, 나아가서 부패하고 모순된 자본주의경제제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경제를 휩쓰는 고질적인 《병》을 고칠수 없다.

경제발전을 가장 빠르고 원활하게 추동하는 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경제의 구성부문들을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사회주의사회이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경제강국건설에로 총공격하고있는 조선의 비약적인 발전에 감탄을 표시하고있다.

그 어떤 경제위기에도 흔들림없이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조선의 비결은 바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데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란 한마디로 말하여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여야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 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으면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다. 물론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극히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받은 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일은 어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힘이 든다고 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처지에서 영영 벗어날수 없고 밤낮 남에게 구걸이나 하며 살아갈수밖에 없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살아가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말도 있듯이 힘들어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잘 살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지켜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자력갱생이란 문자그대로의 의미는 자기 힘으로 일떠선다는것이다. 자기 힘을 믿고 이악하게 투쟁하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다. 조선에서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킨 영웅적투쟁기풍은 자력갱생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이 시기 조선인민에게는 자재와 자금도 엄청나게 모자랐고 로력사정도 매우 긴장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형편도

어려웠다. 이러한 때 일부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전진속도를 늦추자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의 원조만 바라고있었다.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았던 어려운속에서도 조선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자체의 힘으로 폭탄을 만들어 원쑤들을 족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속에 자기의 자재, 자기의 기술, 자기의 손으로 전기기관차, 기중기, 굴착기, 불도젤, 대형공작기계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해내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은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발휘되여 한해사이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으로 국가계획외에 1 만 3 000 여대의 공작기계가 더 생산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때문에 천리마를 탈수 있었다고, 누가 우리에게 천리마를 태워준것이 아니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이끌어오시였다.

주체 97(2008)년 12 월 24 일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면서 이 봉화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펴올려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난관과 시련이 겹쌓여도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있는 한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98(2009)년 1 월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도 자력갱생으로 지펴올리고 강성국가의 대문도 자력갱생으로 열어제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기에 조선인민은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을 확신성있게 열어 나가고있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면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가지수는 실로 수만종에 달한다. 이것을 다 보장해주자면 반드시 여러가지 경제부문 이 다 갖추어져야 한다. 분업이 고도로 발전된 오늘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공정이 빠져도 경제는 빨리 안전하게 발전할수 없다.

1950 년대 중엽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세계사회주의운동내에서 전횡을 부리며 조선에 자기들의 로선과 정책을 그대로 내리먹이려고 하였다. 당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

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은 조선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였다.

이자들은 조선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재더미우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며 어떻게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는가고 시비해나섰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현대적인 기계들을 생산하는것은 때가 이르고 또 수지도 맞지 않으니 원료나 생산하고 기계는 사다 쓰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만일 이자들의 말대로 광석이나 계속 캐내서 다른 나라에 원료를 팔아 살아나간다면 지난날의 뒤떨어진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고 후손들에게는 텅 빈 굴밖에 넘겨줄것이 없게 될것이였다. 또한 기계를 자체의 힘으로 만드는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기계를 사다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개건을 하려고 한다면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를뿐아니라 어느때 가서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을것이였다.

결국 이것은 자립이냐 의존이냐, 자주냐 예속이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운명적인 문제였다. 만일 이때 조선이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로선과 정책을 따랐더라면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될 때 그 운명을 면치 못했을것이다.

세계적으로 그 어떤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키자면 자기에게 필요한것을 기본적으로 자체

로 생산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것외에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면 이와 함께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야한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은 풍부한 원료자원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자체의 기술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적극 개발하지 못하고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겨우 원료나 반제품을 만들어 눅은 값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있다. 그대신 비싼값으로 기계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건들을 사들이고있다. 이런 불평등한 처지에서 벗어나자면 기술문제를 빨리 풀고 이에 기초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오늘의 세기, 21 세기에는 사람의 지능로동에 의하여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사회가 발전되여나간다.

이것은 자체의 기술인재육성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자기 인민을 위한 경제,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경제를 건설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발전은 일정한 발전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하여 그 발전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다 거치며 발전하여 가지고서는 언제가도 남을 따라앞설수 없게 된다.

조선에서는 최단기간내에 세계의 앞장에 서기 위하여 남이 걸어온 발전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대담하게 뛰여넘으며 최첨단기술들을 개발하여 나가고있다.

조선의 과학자들과 로동자들은 콕스를 쓰지 않고 조선에 풍부한 무연탄으로 철을 생산하는 철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철생산기업소들에 주체철생산체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금속공업발전에서 커다란 하나의 혁신으로 된다. 농업부문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는 1대 잡종 벼를 비롯한 다수확알곡품종들이 육성되고 새로운 유기농법,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확대도입을 비롯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현실은 자체의 민족기술인재를 키워내고 그들에 의거할 때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떠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원료, 연료가 없이는 생산이 이루어질수 없다. 원료, 연료를 남에게 의존한다는것은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다. 아무리 크고 현대적인 공장을 많이 건설하여도 원료나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원료, 연료를 비롯해서 기본적인것은 자체의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공업을 처음부터 자기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공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 이와 관련하여 정확히 리해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 국제적인 경제협조와 모순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이 아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것이 아니다.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나라들사이에 경제적협조와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자연부원을 지키며 낡은 경제질서를 끝장내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의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또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가지고있으며 여러가지 좋은 경험과 기술도 가지고있다. 그런것만큼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 발전된 나라들의 신세

를 지지 않고도 능히 경제건설을 잘 할수 있다. 매개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평등한 립장에서 경제협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길, 바로 이 길만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어떤 경제적지배와 예속에 구애됨이 없이 부흥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4) 꼬쏘보전쟁의 교훈

1999 년 3 월 24 일 미국과 나토에 의하여 일어난 꼬쏘보전쟁은 78 일간이나 진행되였다. 이 전쟁기간에 나토는 2 000 여기의 순항미싸일을 발사하고 1 200 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2 만 5 000 여회나 출격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약 2 000 명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죽고 6 000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 만명이상의 피난민이 생겨났다. 이전 유고슬라비아는 약 1 000 억 US＄의 물질문화적손실을 당하였다. 마침내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이 고안해낸 《랑부이에계획》대로 꼬쏘보의 자치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철수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은 개선장군마냥 유고슬라비아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반제투사로 떠받들리던 이전 대통령 밀로쉐위츠까지도 전범자로 몰려 국제재판소의 피고석에 앉게 되였으며 종당에는

운명을 마치게 되였다.

꼬쏘보전쟁은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국방력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자기를 지키려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자기를 지키자면 자기 힘이 있어야 한다. 자기 힘이 없으면 남이 얕보게 되고 남에게 눌리우기마련이다.

나라들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힘이 강해야 누구도 허술히 대하지 못하며 인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

이전 쏘련이 존재하고있을 때 유고슬라비아는 자체의 힘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쏘련의 군사력만 믿고 그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것을 바라면서 그에 의거하였다. 그러다나니 이전 쏘련이 망하자 나라의 국방력에서는 커다란 공백이 생기였으며 결국은 나라의 군사력이 약화되게 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1 만 2 000m 의 높이에서 폭탄을 퍼붓는 적비행기들과 300km 밖의 적비행장, 주변해역인 아드리아해에 정박하고있는 미군항공모함을 비롯한 군함을 타격할 때 공무력과 미싸일을 가지고있지 못한 탓에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패하고말았다.

미국과 나토에 의하여 강요된 꼬쏘보전쟁에서 유고슬라비아가 취한 대책은 순수 방어에 불과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가지고있는 반항공체계를 리용하여 미국과 나토의

공습에 대응하였으며 15만명의 지상군을 준비시켜 적들이 지상무력을 투입하지 못하게도 하였다.

꼬쏘보전쟁기간 유고슬라비아사람들은 미국과 나토의 공습에 랑만적인 유모아로 조롱하고 《인간방패》로 대항해나서기도 하였다. 그들은 싸이렌소리를 《쎄르비아의 민족관현악》이라고 부르면서 대공포사격을 하는 군인들을 고무하기도 하였고 다리와 건물을 비롯하여 필요한 대상들을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겯고 둘러쌓아 미국과 나토의 공습으로부터 지켜내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갖 약자의 저항에 불과한것으로써 적들에게 아무런 작용도 주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과 나토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시설은 물론 공장과 도시, 학교와 병원, 지어는 달리는 뻐스와 구급차, 공습을 피해 피난가는 행렬들에까지 미싸일공격과 무차별공격을 가하여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을 살해하였던것이다.

만일 이전 유고슬라비아군이 자체의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더라면 참혹한 피해는 면할수 없었고 나라의 자주권도 지켜낼수 있었을것이다.

하기에 유고슬라비아의 한 고위인물은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하여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주변나라들이 나토에 합세하고 그처럼 믿었던 로씨야까지 도와주지 않는것을 보고 가슴을 쳤다. 결론은 첫째도 둘째도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것

이다. 이길만이 살길이다.》라고 하면서 뒤늦게야 교훈을 찾았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기를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되새겨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 첨예한 투쟁으로 되고있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고있으며 강권과 힘을 그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있다. 힘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압살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오늘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제는 강한 나라들에게는 어쩌지 못하고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엇서나가는 약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대상에 관계없이 군사적침략을 감행한다. 미제가 나토를 주도하여 유고슬라비아를 공습대상으로 정하고 꼬쏘보전쟁을 일으킨것도 바로 이 나라가 군사력이 약했기때문이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수호하자면 반드시 국방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남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립장에서 자체의 국방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며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제국주의가 살기등등하여 살아있는 이상 그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령토와 주민, 인민은 있어도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자위적국사력을 강화하자면 우선 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대는 전쟁과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전쟁은 계급이나 민족, 국가가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거하여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조직적인 투쟁이다.

현시기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그들은 강대한 힘을 가진 미국이 무엇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안하무인격의 오만무례한 론리를 내세우고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기성국제관례나 국제법, 국제조약도 다 헌신짝처럼 짓밟고있으며 국제적안정과 불안정도 미국의 리해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있다. 세계의 그 어디에서 미국의 《국익》이 《침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슴없이 무력간섭을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군사적수단을 만능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구

휘둘러대는 조건에서 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있다. 군대강화를 기본으로 내세울 때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견결히 수호할수 있다.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세우는것은 자위적군사력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은 지상공격작전을 기본으로 하여 침략하는것을 선차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장거리정밀유도무기, 첨단군사기술장비, 대형타격수단을 선제공격수단으로 하여 적측지역을 초토화한 다음 지상무력을 들이미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결국 현대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벌어지는 립체전이다.

조선은 령토도 작고 종심이 얕으며 세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다.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제가 일거에 점령하려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동시에 덮쳐들것은 뻔하다.

이로부터 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이 손에 무장을 잡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요새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대적이 하늘과 바다, 륙지 그 어디로 쳐들어와도 끄떡없으며 맞받아 쳐물리칠수 있다.

온 나라를 소왕청처럼 만들자!

바로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이였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결심이였다.

항일무장 투쟁의 첫 시기 조선혁명은 소왕청유격구의

넓지 않은 지역에 하나로 응결되여있었다고 말할수 있었다. 일제는 사면팔방에서 하늘과 땅으로 5 000 여명의 정예병력을 내몰아 90 여일간의 끈질긴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때 유격구에는 무장인원이 겨우 2 개중대의 력량밖에 없었다.

전투기술기재의 차이는 말할것도 없고 무장력량상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고한 투쟁끝에 끝끝내 유격구를 사수할수 있은 근본비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고 실현하신 독창적인 전인민적방위체계에 있었다.

군대와 인민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유격구의 곳곳에 적들이 쳐들어올수 없게 여러가지 방어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적들이 덤벼들 때마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결사전을 벌렸다. 로인들과 어린이들까지 총동원되여 목숨걸고 싸웠다. 결과 일제가 비행기와 대포를 앞세우고 쉽게 소멸해버릴것이라고 타산한 소왕청유격구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더욱 억세게 전진할 혁명의 대지로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을 이끌어오신 전기간 조선을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리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을 새겨오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은 군사가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전환되고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움으로써 한

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도처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게 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주체 91(2002)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 돐과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창건 70 돐, 주체 97(2008)년 공화국창건 60 돐, 주체 100(2011)년 9 월 공화국창건 63 돐을 맞으며 인민방위무력의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이 열병식들은 조선인민군의 믿음직한 익측부대로, 적들이 그 어디에 덤벼들어도 자립적으로 격멸소탕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된 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은 전선과 후방, 해안연선과 내륙지대 할것없이 모든 지역과 지대들이 요새화되고 모든 진지들이 현대전의 요구와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튼튼히 꾸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적들도 인정하고있다. 이전 남조선주둔군 미군사령관은 어느 한 신문 기자와의 회견에서 미군이 이전 유고슬라비아와의 꼬쏘보전쟁때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하여 처음으로 스텔스전략폭격기 《B-2》를 동원하여 땅속깊은 곳까지 타격할수 있다는 최신레이자유도폭탄 《방커 바스터》의 효과를 시험분석한 사실을 실토하였다. 그러면서 북조선에서는 이러한 폭탄도 그 위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언명한적이 있었다.

국방공업은 자위적군사력의 물질적담보이다.

자체의 국방공업이 있어야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

하여 군대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수 있다. 국방공업을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장을 필요한 시기에 요구되는 수량만큼 장비할수 없으며 설사 장비한다고 하여도 무장력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수 없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무기를 미끼로 하여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려고 한다. 결국 국방공업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여서는 나라를 보위할수 없다.

현대전은 자체로 무장을 충분히 생산하여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현대전을 놓고 보면 지난 시기 전쟁들에 비할바 없이 방대한 량의 무기와 군사장비들이 동원된다.

이것은 탄약문제만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시기 일반병종집단이 공격작전을 할 때 하루 평균 탄약이 1 200t 정도 소비되였다면 오늘의 전쟁에서는 하루에 탄약을 4 000t 정도 소비하는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제 4 차 중동전쟁시기 수리아군이 이스라엘군에 대하여 반공격을 할 때 어느 한 사단은 1 500 문의 포로 55 분간 포병준비사격을 하였는데 포탄을 약 10 만 5 000 발 쏘았다고 한다. 미제는 1991 년에 있은 페르샤만전쟁 40 여일동안에 태평양전쟁시기 14 개월동안 출동한 비행기수의 11 배에 달하는 비행기를 동원하여 윁남전쟁 9 년동안에 투하한 폭탄의 1.5 배에 달하는 8 만 8 500t 의 각종 폭탄을 투하하였다.

탄약 하나만도 이러하니 다른 무기와 군사장비들은 구

태여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많은 군수물자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강력한 국방공업을 마련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자립적인 국방공업이 없이는 현대전을 감당해낼수 없으며 제힘으로 자기를 지킬수 없다.

조선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체의 국방공업발전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추어놓았다.

선군의 길에서 조선인민이 지금까지 마련한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도 격찬하고있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인 비슈와나스는 《**김정일**,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의 백전백승》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1993 년 태평양상에 있는 미국의 한개 주인 하와이의 주변과 괌도주변에 미싸일을 성과적으로 발사, 1998 년 3 계단 운반로케트에 의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로 조선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군사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시사, 2005 년 핵보유선언, 2006 년 장중단거리미싸일 동시 발사, 2009 년 3 계단운반로케트에 의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로 조선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또다시 과시, 2010 년 열병식에서 신형요격미 싸일종합체 공개, 이 사실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는 조선의

자립적국방공업이 준 군사기술적힘의 크기를 직감하군 하였다.》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이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바란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근본담보는 바로 자위적국방력에 있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은 혁명운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김 정 일

2.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옳바른 길을 걷자면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과 함께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창조적립장이란 간단히 말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이 창조적활동이라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은 창조적활동인것만큼 창조적립장을 지켜야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고 력사를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이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은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는데 하나는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정에 맞게 하는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두가지방법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1) 인민들속으로

세계 5 대륙의 진보적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키며 널리 애독되고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1 권에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즉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동원하여 풀어나갈 때 그 나라, 그 민족은 백전백승할수 있다. 이것은 인민과 더불어 한평생을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절대적진리이며 이 진리는 주체사상이 밝힌 창조적방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는것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혁명을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그 인민들속에서 전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시였고 바로 그 인민에 의거하여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시였으며 바로 그 인민을 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는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였으며 인민에 의거하여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백전백승의 력사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인 동시에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생활신조이기도 하다.

인민을 스승으로, 하늘처럼 여기는 인민의 령도자,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만이 이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간다는것은 인민의 심장속에 침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하지만 인민이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통행증은 단 한가지, 인민에 대한 옳은 관점밖에 없다. 인민은 자기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주인, 력사의 창조자로 보고 언제나 자기를 찾아오며 운명도 같이하는 위인들에게만 서슴없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사심없이 따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휴식일에도 명절날에도 삼복철의 무더위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대소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였으며 병사들이 있고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천리끝까지라도 찾아가시였다.

주체 85(1996)년 11 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섬방어대를 시찰하시기 위해 부두에 도착하시였다.

그날 바다날씨가 대단히 사나웠다.

서북풍이 강하게 불면서 집채같은 파도가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동행한 한 일군이 그이의 앞을 막아나섰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런 날씨에 절대로 쾌속정에 오르실수 없습니다.》

《절대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이 한 말을 되뇌이시며 광란하는 바다모양을 바라보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장군님께 다가서며 파도가 수그러들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나실것을 일제히 말씀드리였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이 파도소리를 제압하며 울려퍼졌다.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다닌 일이 있습니까.》

그이께서는 남먼저 작은 쾌속정에 오르시였다. 사납게 울부짖는 바다로 쾌속정이 떠났다.

가랑잎같은 쾌속정이 파도에 얼마나 들추었으면 그 배에 탔던 사진사, 촬영가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다가 사진기까지 깨뜨리고 이 숭고한 화폭을 하나도 담지 못하였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병사들과 인민을 찾고찾으시며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그이께서 찾으신 곳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그이를 만나뵈운 평범한 사람들이 시대의 선구자가 되고 영웅이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었고 인

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꽉 차있었다.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인민의 령도자!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절세의 위인의 한평생을 인민이라는 이 소박한 두 글자에 다 담을수 있는것이다.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아끼신 인민이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산악같이 일떠서는 모습을 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고계신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 구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 102(2013)년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구호이다. 여기에는 온 사회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 그이의 의도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시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조국번영의 새 전성기를 펼쳐나가고계신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

재결의소동과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전야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던 주체 102(2013)년 3월.

적들은 유엔제재로 조선을 위협하는 한편 조선서해에 열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핵무장장비들과 저들의 추종국가군대까지 집결시켜놓고 광란적인 전쟁연습으로 조선을 포위압살하려고 하였다.

전쟁이냐 평화냐.

바로 이 준엄한 시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서남전선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인 섬방어대들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그곳은 언제 전쟁의 포성이 울릴지, 언제 열핵전쟁의 불바다로 화할지 모르는 최대위험지역이였다.

바로 이 위험한 섬방어대를 자신의 한몸의 위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을 전 세계가 보았다.

그것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맞받아나가시며 인민을 위한 한평생을 쉬임없이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모습그대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을 만나시여 그들에게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겨주시고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시였으며 섬방어대의 병사들은 물론 군인가족들과도 다정한 한식솔이 되시여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한 평범한 군관의 가정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이곳을 찾으시였을 때 품에 안아주시였던 정항명어린이의 첫돌이 어제였다는것을 미리 알고왔다고 하시며 그에게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섬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바래워드리는 병사들과 인민들의 모습도 세계를 감동시켰다.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차디찬 바다물에 서슴없이 뛰여드는 병사들과 인민들 그리고 그들의 두눈에서 소리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세계는 그들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함께라면 사품치는 바다에도 천길벼랑에도 웃으며 날아들 신념의 맹세가 굽이치고있음을 잘 알수 있었다.

위인의 손길에서 영웅적인 인민이 자라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민이 오늘의 조선을 떠받들고 있다.

조선의 현실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할 때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드는것이다.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선생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되는것이다.

주체 64(1975)년 8 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교도통신사 편집국장이였던 이노마다 히시오를 접견해주시였을 때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의 세계앞에 진심으로 경탄하면서 수령님께 그 비결이 아마도 경제부문 책들도 다 보시고 전문가들로부터 경제지식을 배우시는데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는 다른 나라의 정객들이 다 그러하듯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경제와 과학기술분야에서만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두시고 그들의 보좌를 받으실것이라고 속단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짧은 생각을 탓하지 않으시고 과분한 평가라고 하시면서 나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담화를 한다고, 인민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기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업과학자들은 주로 책에 매달려 사업을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들은 풍부한 농사경험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나는 그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것을 가려준다고,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

중이 나의 선생이라고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평범한 농민들을 자신의 스승이라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앞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다.》고 하시면서 한평생 인민을 자신의 둘도 없는 스승으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좋은 안들을 수첩에 적어두시였다가 그것을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토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결정하시였던것이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을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옳은 로선과 정책도 인민대중에게 파악되고 그들이 자기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자면 여러가지 조직정치사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속에서 나와 다시 인민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 성과적으로 동원할수 있다.

해방후 조선에서 토지개혁을 하던 때의 일이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토지개혁의 경험이라고 하면 정권을 잡은 인민대중이 토지를 국유화한 례가 있을뿐이였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은 고려하지도 않고 토

지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농촌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의사와 념원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제땅에서 농사를 짓는것이 농민들의 평생소원이라는것을 헤아리신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규정하시였다. 이렇게 농민들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토지개혁방침을 세우신 다음에는 또 토지개혁을 농민들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토지개혁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였지만 조선에서는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반영한 토지개혁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농민들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결과 이 사업이 불과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었다.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며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다. 인민대중은 하나로 굳게 단결되였을 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수 있다.

대중을 하나의 단합된 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며 인민

적사업작풍을 확립하고 대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레닌의 령도밑에 승리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레닌은 자본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짜리전제제도를 미워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승리후 레닌은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청소한 사회주의국가를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혁명백파도당의 침략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냈으며 전후에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당과 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조직령도하였다.

레닌의 령도밑에 하나로 굳게 단결된 인민의 거대한 힘이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고 인류력사상 첫 사회주의국가를 탄생시켰던것이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을수록 인민이라는 《바다》속에 들어가면 뚫고나가지 못할것이란 있을수 없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할 때 바로 그 인민은 나라와 민족을 억세게 떠받드는 기둥으로, 추동력으로 될것이고 그러한 인민이 있는 나라는 강성부흥할것이다.

2) 자기 식이 제일

주체 69(1980)년 8 월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을 방문한 요르단민족자문리사회 위원장 앗타라 우나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대표단을 접견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크나큰 영광으로 격정에 넘쳐있던 위원장은 그이께 세상에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나라는 많지만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의 전형으로 된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러운 안색을 지으시며 그에게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한것 같다고 하시고나서 조선이 갓 해방되였을 때의 사실에 대하여 들려주시였다.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밥을 먹겠는지 알고싶다고 하였다.

어떤 식으로 밥을 먹겠는가, 말하자면 갓 해방된 조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라를 건설해나가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그들에게 쏘련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우리식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은 조금도 론의할 여지가 없

는 명명백백한 대답이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즐거운 웃음을 짓고있는 그들에게 서양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포크와 칼을 쓰고 중국사람들은 저가락을 쓰지만 우리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조상때부터 밥을 주식으로 해왔으며 김치와 국을 비롯하여 물기가 많은 음식을 섭취해왔다. 민족이 형성되면서 조선의 생활환경에 맞게 굳어진 식생활풍습은 숟가락을 식사도구로 리용하는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조선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칼이나 포크, 저가락으로 밥과 국을 먹을수는 없는것이다.

수령님의 말씀에 담겨져있는 뜻은 그야말로 심오하였다. 식사를 하는것이 《혁명》이라면 그에 맞는 무기로 해야 한다는것, 빵과 고기에는 포크와 칼이 제격이지만 밥과 국에는 숟가락이 제일이라는것, 따라서 조선혁명은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숟가락,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한마디에 담아 명백하게 통속적으로 표현하신것이다.

실정에 맞게 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창조적방법의 다른 하나의 내용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언제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한다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를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는 남의 식이 아니라 자기 식이 제일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걸어온 력사가 다르고 경제발전수준과 자연지리적조건도 다르며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심리, 풍습과 생활방식도 다르다. 또 나라마다 민족마다 처하여 있는 국제적환경도 다르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가 자연지리적조건이나 정치경제적조건이 서로 다른것은 물론이고 한 대륙안에서도 매개 나라와 민족은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처해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한다. 사람들은 바뀌여지는 계절에 따라 그에 해당한 옷을 바꾸어 입으며 생활방식도 달리한다.

마찬가지로 시대와 력사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객관적 환경도 어제와 오늘이 같을수 없고 오늘과 래일 역시 같을수 없다. 따라서 어제날의 방법으로 오늘의 투쟁을 할수 없고 오늘의 방법이 래일에도 맞을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일률적으로 다 들어맞는 처방이란 있을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다 맞는 만능처방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와 민족이 운명을 개척해나가자면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기성리론을 옳게 대하는것이다.

기성리론은 이미 지나간 력사적시기의 실천에 기초하여 나온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수 없다.

기성리론을 대하는데서는 그것이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또 어떤 전제밑에서 나왔는가를 따져보고 자체의 구체적현실과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리론은 쓸모가 없다. 만약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천과 실정에 맞는것이라면 구태여 기성리론

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될 필요는 전혀 없는것이다.

기성리론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서 정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과 그 수습과정은 기성리론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가 얼마나 위험한것이며 모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한때 유격근거지에서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쏘련의 쏘베트로선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유격근거지에 쏘베트정권을 수립하여놓았다. 조선의 사회발전수준과 조선인민의 생활감정은 전혀 안중에도 없던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철폐를 선포하고 토지와 식량으로부터 낫, 호미, 걸이대와 같은 간단한 농쟁기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이 소유하고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리였으며 유격구안의 모든 주민들이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공동생활, 공동로동, 공동분배의 새로운 질서밑에서 움직이도록 하였다. 좌경적인 쏘베트시책이 빚어낸 후과로 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생기였으며 지어는 많은 가정들이 쏘베트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을 무시하고 기성리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데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발전의 구체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고 쏘베트의 극좌적망동을 청산하심으로써만 극복될수 있었다.

기성리론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를 배격한다고 하여 오늘의 현실에도 의의가 있는것을 무턱대고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어제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잘못된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오늘의 현실과 혁명투쟁의 창조적성격에 맞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시대적조건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운명개척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는것이다.

시대는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한다. 변화발전하는 오늘의 시대는 인류의 절박한 해결을 바라는 수많은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끊임없이 산생시키고있다.

대표적실례들을 들어본다면 랭전의 종식과 더불어 좌절된 사회주의운동을 어떻게 재생시켜야 하는가, 정보산업의 발전과 함께 육체로동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인테리대렬이

늘어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력량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가, 날로 횡포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더욱더 심각해지고있는 환경문제를 인류는 어떻게 타개해나갈것인가 등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하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도는 무엇인가.

새것의 가치는 새로운 자막대기로만 잴수 있듯이 새로운 문제는 오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원리로만 풀수 있다. 따라서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원리와 방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천에 적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현시대가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시여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정치사에 류례없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고 그를 구현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신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선군정치라는 말은 그 어느 정치사전에도, 그 어느 나라 정치력사에도 없는것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된 시대의 요구와 자주성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

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선군을 조선혁명의 전략적인 정치로선으로 제시하시고 불패의 기치로 높이 추켜드시였다. 그리고 선군정치의 요구를 구현한 국방공업 선행,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이라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여 국방력강화를 더욱 강력히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힘있게 추진하여오시였기에 오늘 조선은 불패의 군력을 가진 위력한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를수 있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는데서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남의 경험을 참고하는것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생소하게 하는 일보다 이미 해놓은 경험을 참작하는것이 더 쉽고 빠르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문제는 남의 경험을 어떻게 참고하는가 하는것이다. 남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창조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 나라에서 생활력과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된 좋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에 꼭 들어맞을수는 없다. 남의 경험에는 자기 나라에 필요하고 유익한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으며 자기 나

라의 실정에 맞는것도 있고 맞지 않는것도 있다.

그러므로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씹어보고 자기의 구미에 맞고 달면 삼키고 자기 구미에 맞지 않고 쓰면 뱉아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의 경험을 배우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배우되 음식을 먹을 때처럼 당기면 먹고 당기지 않으면 뱉아버려야 하며 먹는 경우에도 자기 식으로 먹어야 한다.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타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남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아무런 고려없이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세계화》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이 어떻게 되였는가를 살펴보자.

원래 《세계화》란 그 목적부터가 철저히 미국을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로 만들고 미국과 그에 종속된 자본주의렬강들이 세계를 좌우지하는 신식민주의적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미국의 지배주의전략으로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에게는 《좋은 처방》으로 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요란히 광고한 경제의 《세계화》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시장의 문을 열어놓고 마음대로 투자하고 제한없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할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서 녹아날것은

발전도상나라들뿐이다.

매개 나라에는 자기에게 맞는 경제구조와 경제관리방식이 있으며 따라서 그에 맞는 경제발전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를 옳게 발동하고 경제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명처방으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에는 자기의 실정에 맞는 경제구조와 경제질서, 무역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뛰여넘어 《세계화》의 길로 나간다면 자기의 고유한 경제방식과 구조를 잃어버리고 발전된 서방나라들의 완전한 경제식민지로 전락되고말것이다. 아무리 시장문이 열려져있고 경제무역의 《세계화》가 실현된다고 한들 발전도상나라들이 발전된 나라들과 경쟁할수 없으며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실제로 선진공업국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주요수출품들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계속 쌓고있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면제》니 《기술원조》니 하는 따위의 제안들을 들고나오면서 거기에 정치경제적부대조건을 걸고있다. 그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관심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론의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금융업과 같이 저들이 리득을 볼수 있는 분야들에서만 《자유화》를 주장하고있다.

바로 그 금융의 《세계화》가 마침내 1990 년대 말엽 동남아시아를 파국적인 경제위기로 몰아갔던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미국은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위기와 혼란을 겪은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그 무슨 《지원》과 《협력》을 표방하면서 이 나라들을 저들의 《원조》의 올가미에 깊이 밀어넣어 지배하려고 획책하였다.

《세계화》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것처럼 그 무슨 문제해결의 《좋은 처방》도 《좋은 약》도 아니다. 그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재정금융 및 무역, 문화, 보건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엄중한 파괴를 가져오며 실업의 폭발적인 증대를 낳는다. 또한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경제발전수준에서의 차이와 물질적부에서의 차이를 더욱 커지게 하고 매개 나라의 고유한 민족적전통과 관습까지 쓸어버리게 한다.

《세계화》에 말려든 나라들처럼 제기되는 과업과 부닥치는 난관앞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방도를 탐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 제기되는 모든 정치경제적난관앞에서 자기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방도를 찾아 자기 식으로 뚫고나가자.

자기 식!

이보다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위력한 식은 이 세상에 없다. 정치도 자기 식으로 하고 경제와 문화도 자기 식으로 발전시키며 국방도 자기 식으로 강화해나가자.

모든것을 자기 식으로 해나갈 때 남이 앓는 열병에도

걸리지 않고 남이 당하는 망국의 비극도 겪지 않으며 자기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길로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다.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

김 정 일

3.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이 원칙은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의 륭성번영과 부흥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원칙이다.

사상의식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모든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운동이다. 그런것만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자면 반드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추동력인 사상의식을 틀어쥐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하겠다는것은 추진기가 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가겠다는것과 같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원칙은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는데 하나는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우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다.

사상개조를 앞세우는것이 주로 사람자체를 높은 사상의식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개조하는 사업이라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기로 하자.

1)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

2010 년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신 15 돐에 즈음하여 뷸레찐 《사상사업을 앞세워》를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사상적일 색화를 실현하여》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이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시킬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조를 지니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을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내세우고 힘있게 이끄시였다.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높은 정신력과 그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는 다름아닌 사상교양사업의 생활력을 보여주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령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고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으며 누구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보석은 땅속에 묻혀도 그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세월의

흐름은 위대한 사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린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학성과 진리성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사상분야에서의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이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개조사업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강성부흥하는 국가를 건설하자면 사람부터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야 하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람이다.

정치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도,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선진적인 문명국건설도 나라와 민족의 주인인 사람이 하는것만큼 사람을 개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며 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이 자각을 망각한다면, 사상정신적으로 부패변질되여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한다면 그 나라와 민족의 존망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사람을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주인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밝은 전도, 양양한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람을 개조하자면 사람들의 사상부터 개조하여야 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상개조사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이다.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수 있는 힘있는 존재로 준비시키자면 그들이 선진사상과 높은 과학기술지식,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바로 사상개조이다.

사람은 옳바른 사상을 가져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할수 있으며 자기의 지식을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 인류를 위하여 유익하게 써먹을수 있다.

그러나 사상이 나쁘면 오히려 지식이 우환거리로 된다. 제 2 차 세계대전시기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반동적인 학자들이 인간을 대량살륙하기 위한 방법을 산 사람을 가지고 연구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옳은 사상을 가지지 못하면 지식이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데 리용되게 된다는것을 보

여준다.

이처럼 사람을 개조하는데서 사상개조가 기본이다. 그러므로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나갈 때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짓부시며 곧바로 전진할수 있다.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나가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제도의 탄생과 존재, 그 발전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사상이 나오고 그 사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가 탄생하고 공고발전된다. 사상의 힘에 의하여,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라는데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사상개조사업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사회주의의 공고발전과 그 운명이 달려있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사상개조사업을 홀시하는것은 사회주의의 기본을 놓치는것이며 이것은 필연코 사회주의를 변질과 붕괴에로 이끌어가게 된다.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가 이것을 잘 말해준다.

물론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사상개조사업을 차요시한것이다.

당시 이 나라들에서는 객관적인 물질경제적조건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경제건설에만 매여달리면서 인민대중의 사상개조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사람들속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집단주의정신이 발양되지 못하고 개인의 리익과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만연되였다.

단편적인 자료를 들어본다면 1982 년에 이전 쏘련의 전체 경지면적의 14%에 해당한 개인터밭경리에서 감자와 과일, 알류, 고기가 각각 전국생산량의 61%, 54%, 34%, 29%나 되였다고 한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바탕과 사회적침체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주의배신자 고르바쵸브는 《새로운 사고방식》, 《사회주의에로의 새로운 길》을 요란스럽게 제창하면서 자본주의복귀의 길로 나아갔다.

당시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는 이른바 《새로운 길》을 제창하는 고르바쵸브의 본색을 꿰뚫어보지 못할 정도로 흐려져있었다.

고르바쵸브는 이것을 기회로 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사회주의사상의 변질과정을 더욱 촉진시켜나갔다. 하여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불평불만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였고 반동분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묵인하거나 추종하게 되였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사회주의사회의 주체로서 사회주의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갈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서는 인민들이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되다보니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앞에서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인류의 지향이고 념원인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력사의 비극을 진보적인류는 가슴아프게 체험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가 이렇게 영영 무너지고 마는가. 제국주의반동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어댔고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리념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하였다.

절망과 모대김속에서 진보적인류는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조선을 바라보았다.

이 준엄한 력사의 시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

성에 대하여 론증하시였다.

일시적인 난관앞에 갈길을 몰라 방황하던 인류는 희망의 등대를 발견하게 되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은 다시금 자기의 궤도를 따라 전진할수 있는 라침판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조기붕괴설》까지 내돌리며 사회주의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책동을 사상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의 고립과 봉쇄, 사상문화적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조건에 맞게 사상분야에서 전면적인 공격전을 벌려 사상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사상진지가 무너지면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되고 사회주의제도도 허물어지기 마련이며 군사적타격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고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하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지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에게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시키고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이것이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투철한 신념이였다.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간직한 조선인민은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만든 대용식량을 씹어삼키면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기계를 돌리고 옥토를 가꾸었다.

이 나날 조선인민의 정신력은 백배천배로 억세여졌으며 전체 인민은 기어이 혁명을 완수할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산악같이 일떠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마련해나갔다.

조선의 경험은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야 하는것은 결코 사회주의나라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강성번영과 사회적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야 할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나라들에서는 인간개조사업, 사상개조사업을 소홀히 하고 경제건설일면에만 치중하고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물질적자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이 아니라 물질경제적요인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이다. 사상은 무기없이 세계를 지배하는것이다.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된 인민은 설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없다.

2003 년 3 월 미제가 일으킨 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가 얼마 못가서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진것은 현대적무기가 없거나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미국이 벌린 교묘한 심리모략전에 걸려 군대와 인민이 사상정신적으로 녹아났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이라크전쟁기간 미국은 2 800 만장에 달하는 삐라를 살포하였고 거액의 자금을 들여 방송국을 세우고 특수작전비행기를 동원하면서 매일 서로 다른 5 가지 주파수로 17 시간씩 선전방송을 하였다. 그들은 삐라와 방송을 통하여 싸담정권을 반대하고 미국을 환영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것, 미국은 싸담의 《독재통치》로부터 이라크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싸우고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모략선전을 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라크장성들에게 각이한 통로로 접근하여 항복만 하면 미국시민증을 주어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하여줄것이라고 회유하였다.

미국은 그 덕을 톡톡히 보았다. 이라크군부의 중추가 와해되여 병사들은 미군을 눈앞에 두고도 《저항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과반수의 장병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무질서하게 도주함으로써 이라크군대는 완전히 와해되였다. 또한 이라크사람들은 적들이 도시문밖에 온 시각에도 시장에서 헤매다가 침략자를 《해방자》로 환영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것이다.

력사는 우리들에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을 틀어쥐지 못하고 사상개조를 앞세우지 못하면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면 천만대적도 무섭지 않고 고난과 시련도 두렵지 않다.

최근 년간 사회주의조선이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제와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련전련승할수 있은것도 사상과 신념의 승리였고 제재와 봉쇄, 압력과 공갈이 더욱더 강화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을 창조하고있는것도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기적이다.

이 력사의 기적은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 조선인민을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들로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메히꼬단체는 뷸레찐 《사상사업을 앞세워》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던것이다.

《로작이 발표된후 지난 15년간 조선이 걸어온 로정은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의 정당성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준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더우기 미국에 의하여 반세기이상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하고있는 조선이 지난 세기 말엽의 가장 엄혹한 정세와 시련속에서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

내여나갈수 있은것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웠기때문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면서 오늘 조선에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당과 인민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사상과 신념이 무너지면 인간자체도 무용지물이 되고 강대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게 된다.

그러나 백절불굴의 사상의 힘을 지닌 인민이 있는 나라는 비록 일시적인 난관을 겪는다 해도 그 전도와 미래는 양양하며 필연코 강성번영할것이다.

2) 단천항의 첫 배고동

주체 101(2012)년 5월 3일.

이날 조선의 함경남도 단천지구에서는 단천항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준공식이 끝난 후 첫 화물을 실은 무역짐배 《비류강》호가 단천항에 첫 배고동소리를 울리며 떠나갔다.

그 배고동소리를 듣는 항만건설자들을 비롯한 모든 준공식참가자들은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이 되는 태양절을

계기로 반드시 단천항에 배고동소리를 울려야 한다고 하시며 준공식에는 꼭 자신께서 나와 준공테프를 끊겠다고 약속해주시였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단천항은 지나온 세월과 함께 하많은 사연과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였다.

단천항건설은 광란하는 날바다와의 싸움이였고 부두의 바닥만큼 쌓인 수백만㎥의 모래를 퍼내야 하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검덕지구의 자연부원을 무제한 략탈하기 위하여 1930 년대 후반기부터 단천항건설을 시작하였지만 불리한 건설조건으로부터 끝내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마그네샤공업이 전성기에 오른 1970 년대 이후 단천항건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문제로 여러번 제기되였다.

단천항을 건설하면 단천지구에서 생산되는 마그네샤크링카와 아연을 항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해당 부문에서 단천항건설과 관련하여 수십차례의 심중한 론의가 있었으나 매번 현실적인 건설방도를 찾아내지 못한것으로 하여 중지되고말았다. 1990 년대 후반기 부터 또다시 단천항건설이 절정에 올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라형편이 단천항을 건설할만큼 허락되지 않는다

고 생각하면 서 이 건설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반세기이상 그처럼 곡절을 겪으며 누구도 할수 없다던 단천항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분은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천지구에 현대적인 무역항을 건설하여 오직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을 헤쳐오느라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행복을 다 안겨주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주체 101(2012)년까지 무조건 단천항에서 첫 배고동을 울려야 한다고 일군들과 항건설돌격대원들에게 명령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파도세찬 바다가공사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일군들과 항건설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천항건설자들은 모두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영웅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께서는 그들을 믿는다고, 어려운 공사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해낼것이라는 한량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방파제공사의 비결을 몸소 가르쳐주시고 현지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으며 항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는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 그들의 사상이 발동되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믿음은 건설자들에게 위

훈의 나래를 달아준 원동력이 되였고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항건설을 결정적으로 앞당기는 열쇠로 되였으며 장군님의 은정깊은 조치는 놀라운 항만건설속도를 낳는 추진력이 되였다.

단천항건설자들은 일제가 끝내 하지 못하고 물러선 항건설을 10년이라는 기존공식을 뛰여넘어 자체의 힘으로 3년안에 해제낄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광란하는 대자연을 정복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우리 식의 새로운 기술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항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방대한 방파제와 부두공사를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잠수공들은 한겨울의 바다물속에서슴없이 뛰여들어 지반고루기와 기초부재조립을 선행시켜나갔으며 굴진과 골재를 맡은 건설자들은 불리한 자연조건을 완강한 의지로 극복하며 건설속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항만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대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계기로 단천항에 첫 배고동소리를 울릴수 있게 되였다.

현대적인 무역항으로 훌륭히 일떠선 단천항!

이것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 그들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세기적인 기적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위대한 창

조물이다.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것, 이것이 바로 정치사업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인민대중에게 그 목적과 의의, 방도를 알려주어 그들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떨쳐나서도록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

정치사업이란 한마디로 사람과의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 사업이다.

어떤 일을 하자면 사람이 움직여야 하고 사람이 움직이자면 먼저 그의 사상이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사상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 휘발유나 디젤유를 넣고 발동을 걸어야 자동차를 움직일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사상의식도 발동을 걸어야 사람들의 행동을 떠밀어주는 작용을 할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키자면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

펴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사업의 승패는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무슨 일이나 마음먹기 탓이라고 인민대중의 마음만 움직이면 그들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치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자.

정치사업은 우선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한다는것은 그 어떤 문제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것이다.

명령하고 호령하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으며 사람들을 움직일수 없다. 설사 명령과 호령에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그것은 마지못해 움직이는것이니 창발성과 열성이 나올수 없다.

제 2 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는 명령과 호령, 총칼로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움직이려고 하였다.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지 못하고 강권에 못이겨 억지로 하는 일이 잘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쏘련군대에서는 24 만명의 유급정치일군들을 비

롯하여 수많은 정치일군들이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군인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 그들을 조국과 사회주의를 보위하기 위한 성전에로 불러일으키였다.

히틀러의 마지막아성이였던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에 붉은기를 꽂은 그 치렬한 전투를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

당시 이 전투를 맡은것은 쏘련군 제 150 보병사단이였다. 이 사단은 후퇴시기부터 간고한 싸움을 거쳐 마지막돌격선인 도이췰란드국회 의사당앞에까지 왔다. 국회의사당꼭대기에 붉은기를 꽂으면 전쟁은 끝나게 된다.

그러면 정다운 고향으로,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간다. 마지막전투이다. 병사들의 마음은 무거웠고 지휘관들조차 적탄이 날아오면 머리를 들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군인들을 최후돌격전에로 용감하게 불러일으킬수 있을가.

사단장이 직접 병사들앞에 나섰다.

마지막결전이 남았다, 그동안 많은 전우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는 그들의 몫까지 다 합쳐 저 국회의사당마루에 우리의 기발을 꽂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남들에게 기발을 꽂아달라고 하여야 하겠는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의사당을 점령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전사들에게 어느 전투가 생각나지 않는가고 웨쳤다.

전사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 그는 《그때 전선 1km 당 각종 포 150 문, 땅크 40 대, 6 개 비행대대가 우리를 지원했습니다.

동무들! 동무들은 경험많은 오랜 싸움군들인것만큼 자체로 타산해보시오. 오늘 우리 사단의 공격전선 1km 당 포 400 문, 땅크 250 대, 비행기는 요구대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병사들은 이 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다. 그리고 당과 조국이 자기들을 얼마나 아끼는가를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였다. 그리고 이 타격력앞에 살아남을 적군이 몇놈 안되리라는것도 육감으로 느꼈다.

《사단장동지, 빨리 명령을 주십시오. 그까짓것 단숨에 해제낍시다.》

군인들의 심장이 달아올랐다. 모두가 격동되여 일떠섰다. 사단은 총공격에로 나아갔으며 드디여 국회의사당꼭대기에 붉은기를 꽂았다.

최후결전을 앞두고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한 정치사업이 은을 낸것이다.

정치사업은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은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는 각이한 수준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게 된다.

정치사업의 대상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로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도 있다. 또 같은 로동자라고 해도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탄부도 있고 산판에서 일하는 벌목공도 있고 광산에서 쇠돌을 캐는 광부도 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나이, 성별, 지식수준, 취미, 성격 등도 다 같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사업은 언제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갈 때 더 큰 은을 낼수 있다.

정치사업은 또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정치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있다. 실천과 동떨어진 정치사업은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실천적성과로 나타나야 하며 그에 의하여 평가되여야 하는것이다.

조선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했던 천리마대진군을 보자.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3 개년계획이 끝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던 당시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동무들이 강재를 1 만 t 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접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분연히 떨쳐일어나 6 만 t 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분괴압연기를 가지고 9 만 t 의 강재를 생산할것을 결의해나섰으며 결국 12 만 t 을 생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펴주신 대고조의 불길은 삽시에 온 나라에 펴졌고 조선에서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던것이다.

나라앞에 조성된 엄혹한 난관을 강선의 로동계급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단번에 타개해버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치사업, 이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숭고한 귀감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인민의 심장에 지펴주신 봉화가 있었기에 조선은 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적열의와 창발성에 의하여 전후 재더미만 남았던 빈터우에서 불과 3 년동안에 다시 일어설수 있었다.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달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 이 세상에 점령못할 요새나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기본

집필: 신현숙, 김창경

냈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인쇄: 주체 103(2014)년 2월 15일

발행: 주체 103(2014)년 2월 25일

ㄱ-35166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3(2014)년